

2012. 8. 20 Vol. 34

주간 농업·농촌 동향

주요 농정 이슈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하반기 1,474억 원 추가 지원
해외농업개발사업, 미국 서해안에 발판 마련

거시경제 동향

2012년 7월 생산자물가지수

KREI 리포터 현장 여론

농촌지역 보건의료 환경 및 농촌지역 현안 문제

농정 여론 동향

농업 전문지 여론 동향

연구 지원 정보

도농교류 현황(2011년 말 기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향 분석실

본 자료는 농업 유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와 동향분석실에서 주간 단위로 수집한 정보를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자료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사오니 자료 활용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농정 이슈_1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하반기 1,474억 원 추가 지원

※ 본 자료는 8월 16일 농림수산물식품부에서 발표한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하반기 1,474억 원 추가 지원」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개요

- 정부는 **침체된 경기부양과 서민생활 안정, 수출 촉진** 등을 위해 금년 하반기에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농안기금’)에서 **1,474억 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
- 따라서 금년도 **농안기금 지출규모**는 **당초계획**(2조 2,022억 원)**보다 6.7% 증가한 2조 3,496억 원**이 될 전망
 - ※ 농안기금은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 유통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의하여 1966년에 설치됨.

□ 주요 내용

※ 이번 추가 지원 대상사업은 크게 ① **농산물의 가격안정**(양념채소 계약재배 및 비축지원), ② **농산물 유통개선**(인삼·약용작물 계약재배 및 수매지원 등), ③ **수출촉진**(수출업체 원료구매 지원) 분야

- (**농산물 가격안정 사업**) 기상 여건 등에 따라 수급불안이 빈번히 발생하는 **노지채소류의 생산량을 조절하고 적정하게 공급하여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사업
 - 금년 생산량 감소로 **가격이 상승한 양파, 마늘 계약재배물량을 수매**하여 내년도 생산시기까지 **유통물량 확보**
 - 기상 여건에 매우 민감한 **배추, 무 등 김치 주재료의 공급량을 충분히 확보**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채소류 가격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임.

- 비축지원사업은 수입 또는 수매를 통해 농산물을 비축했다가 필요시 방출하여 농산물의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사업
- 국내 수급안정을 위해 증량한 수입증가분 콩 3만 1,717톤, 팥 5,000톤 등을 추가로 도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계획
 - ※ 콩: 25만 3,283톤 → 28만 5,000톤(증 3만 1,717톤)
 - ※ 팥: 21만 톤 → 29만 톤(증 8,000톤)
- (농산물 유통개선 사업) 농산물 유통개선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인삼 약용작물계열화 사업은 인삼과 약용작물의 재배단계부터 생산자와 구매자(농협)가 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을 안정시키고 철저한 이력관리를 통해 안전성을 높여 나가기 위한 사업
 - 농협과 계약을 맺고 농업인이 생산한 인삼과 약용작물을 수매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계획
- (수출촉진사업) 농식품 수출에 필요한 원료구매자금을 적기에 지원하여 국산 농식품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것
 - 그동안 예산지원이 부족했던 수출업체 및 농협의 파프리카, 감귤 등 신규 수출연합사업체를 지원

※ 본 자료는 8월 13일 농림수산물부에서 발표한 「해외농업개발사업, 美 서해안에 발판 마련」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개요

○ (사업목적) Long Beach Port(California, USA)에 곡물수출터미널을 건설하여 기존 Bulk 운송대비 비용경쟁력 있는 컨테이너 운송을 위한 Supply Chain 구축

○ (사업개요)

- 총 투자비: 약 5,000만 달러
- 위치 및 면적: Long Beach Port, California, USA, 약 20에이커
- 최대 처리가능 물량: 연간 220만 톤
- 옥수수, 콩, 주정박을 컨테이너로 환적

< 참고-미국 곡물 수출 경로 >

○ Bulk 운송

- 미중서부 곡물생산지 → 미남부(멕시코만) → 파나마 운하 → 아시아 경로이며, 산지에서 국내로의 소요기간은 약 60일, 전체 수출물량 중 65%가 이 구간 이용
- 미중서부 곡물생산지 → 미서안북부(PNW) → 태평양 → 아시아 경로이며, 소요기간은 35일, 약 25~30% 이용

○ 컨테이너 운송

- 미중서부 곡물생산지 → 미서안남부(PSW) → 태평양 → 아시아 경로이며, 소요기간은 30일, 약 5~10% 이용.

※ 아시아로의 컨테이너 곡물 물동량 증가 예상

□ 주요내용

- (주)한진해운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미국 LA 롱비치 항에 연간 220만 톤을 처리할 수 있는 곡물 터미널 건설 추진 중(총 5천만불 투자)
- (주)한진해운은 **미중서부에서 확보한 옥수수, 콩, 주정박 등 사료곡물**을 셔틀트레인으로 **LA 인근 롱비치항 운송 후**, 이 곡물터미널을 통해 컨테이너에 환적하여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에 공급할 계획**
 - (주)한진해운은 이 곡물터미널에서 한국으로 환송되는 빈 컨테이너에 곡물을 선적하여 운반할 계획이며, 이는 기존 곡물터미널에서 벌크선으로 운송되는 방식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의 경제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음.
 - **지금까지는 미국에서 곡물을 수입 할 경우** 멕시코만 → 파나마 운하가 주된 운송경로(**약 60일 소요**)로 활용됨.
 - **이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와 가까운 미국 남서해안에 곡물터미널을 확보함으로써 **최대 30일까지 운송기간이 단축**되어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됨.
- **2014년에 곡물터미널 시설이 완공되면** 2015년부터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에 본격적으로 곡물을 공급할 수 있는 곡물터미널로서 기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
- (주)한진해운 관계자는 터미널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2015년에는 연간 110만톤(가동율 50%) 정도를 처리**할 계획
 - **이중 국내에 30만톤의 곡물을 공급**하고, **2022년까지 국내 공급량을 60만톤 규모로 확대**하겠다는 계획
- 한편, 최근 (주)STX 팬오션이 미국 북서해안 워싱턴주 롱뷰항에 지분(20%) 투자한 곡물 터미널(연간 900만톤 처리)이 완공되는 등, 세계 최대 곡물 생산지인 미국에 우리기업의 곡물유통분야 진출 가시화

거시경제 동향

2012년 7월 생산자물가지수

※ 본 자료는 8월 10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2년 7월 생산자물가지수」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전반적 동향

- **2012년 7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5% 하락**(전년 동월대비 0.1% 하락)
 - **농림수산물**: 과실류와 축산물이 내렸으나 채소류가 올라 **전월대비 0.2% 상승**(전년 동월대비 3.4% 하락)
 - **공산품**: 석유제품, 화학제품, 1차금속제품 등이 내려 **전월대비 0.8% 하락**(전년 동월대비 0.7% 하락)
 - **서비스**: 운수 및 금융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0.2% 상승**(전년 동월대비 0.7% 상승)

<생산자물가지수 등락률>

단위: %

구분	가중치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			
		'12.4월	5월	6월	7월	'12.4월	5월	6월	7월
총 지 수	1000	-0.1	-0.6	-1.4	-0.5	2.4	1.9	0.8	-0.1
농 립 수 산 품	43.6	-3.5	-1.6	-5.9	0.2	0.2	5.3	0.2	-3.4
곡	11.0	0.2	0.1	0.0	0.0	6.1	5.5	5.7	5.8
채	7.4	-6.0	-11.4	-12.3	9.5	27.3	37.3	26.4	2.5
과	5.3	-2.6	4.2	-9.9	-4.6	-4.9	24.0	9.6	9.3
축	12.0	-2.9	0.5	0.8	-2.9	-14.5	-15.8	-15.0	-12.6
수	5.3	-0.2	-0.8	-2.6	0.5	-11.3	-5.4	-7.9	-12.5
공 산 품	644.8	0.2	-0.7	-1.6	-0.8	2.5	1.6	0.3	-0.7
음	52.8	0.1	0.4	0.0	0.3	4.0	3.9	3.3	2.5
석	59.7	0.8	-3.4	-4.9	-2.5	8.1	5.1	2.4	-0.8
화	55.2	0.6	-0.8	-5.4	-1.7	1.7	0.2	-3.2	-2.8
1 차	65.6	-0.4	-1.1	-2.7	-1.7	-0.1	-1.6	-4.8	-6.7
금 속 제 품									
전 자 부 품 · 컴 퓨 터 ·	93.7	0.7	0.5	0.5	-0.9	-2.9	-2.4	-1.5	-0.2
영 상 음 향 · 통 신 장 비									
전 력 · 수 도 · 가 스	44.5	-0.2	-0.7	0.1	0.1	10.1	7.7	7.8	7.5
서 비 스	264.4	0.2	-0.1	-0.2	0.2	1.0	0.8	0.8	0.7
운 리	61.6	0.8	0.4	-0.5	0.5	2.2	1.9	1.9	2.5
스 및 임	2.5	-0.3	0.8	0.2	-0.6	-1.0	-0.2	0.0	-0.3
전 문 서 비	43.3	0.1	-0.1	-0.2	-0.2	2.9	2.7	2.6	2.1
기 타 서 비 스	31.1	0.3	0.2	0.1	0.5	3.2	3.0	3.3	2.9

□ 특수분류별

- 식료품은 전월대비 0.5% 상승(전년 동월대비 0.1% 상승)
- 신선식품은 전월대비 3.2% 상승(전년 동월대비 3.4% 하락)
- 에너지는 전월대비 2.3% 하락(전년 동월대비 2.8% 상승)
- 신선식품및에너지이외는 전월대비 0.3% 하락(전년 동월대비 0.4% 하락)

<특수분류 지수 등락률>

단위: %

구분	가중치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			
		'12.4월	5월	6월	7월	'12.4월	5월	6월	7월
식 료 품	81.3	-1.3	-1.0	-2.3	0.5	2.1	4.5	2.3	0.1
식 료 품 이 외	918.7	0.1	-0.5	-1.4	-0.5	2.4	1.6	0.7	-0.1
신 선 식 품	16.4	-3.9	-4.6	-10.1	3.2	3.2	18.4	7.9	-3.4
신 선 식 품 이 외	983.6	0.1	-0.5	-1.3	-0.5	2.4	1.6	0.7	0.0
에 너 지	93.8	0.8	-1.7	-2.2	-2.3	9.3	6.9	5.9	2.8
에 너 지 이 외	906.2	-0.2	-0.4	-1.3	-0.2	1.4	1.2	0.1	-0.4
I T	175.1	0.0	0.1	-0.1	-0.5	-1.8	-1.5	-1.2	-1.3
I T 이 외	824.9	-0.1	-0.7	-1.6	-0.5	2.9	2.3	1.1	0.1
신 선 식 품 및 에 너 지 이 외	889.8	-0.1	-0.3	-1.1	-0.3	1.4	0.9	0.0	-0.4

□ 농촌지역 보건 의료 환경

○ 농촌지역 지하수 수질검사 필요

- 농촌에는 대부분 수돗물보다는 지하수를 먹게 되는데 어떤 물인지도 모른채 식수로 사용하고 있어 걱정임. 농촌지역 지하수도 검사를 해서 먹을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할 것임. 마을에 고령자만 있다 보니 어디에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는지도 모르는 실정임.<김용덕, 경기 남양주>

○ 농촌지역 위급환자 응급조치 시스템 필요, 경로당에도 관심을

- 서산시 부석면의 경우 면단위에 보건소라고 해야 1개소가 있고 26개 부락인데 1인이 근무하는 보건지소 2개소가 전부임. 따라서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119를 불러 13km를 가야 될 상황이며 그마저도 없는 경우엔 개인 택시로 가야하는 실정임.
- 노인들의 휴양처는 경로당인데 정부에서 관심은 갖고 있지만 모든 시설이 부족하여 아쉬움이 많음. 정부에서 운동 기구는 물론이고 기타 노인들을 위한 시설도 신경써주어야 할 것임.<서준석, 충남 서산>

○ 면단위에 개인 약국 하나 없고, 물리치료 받기위해 20~30km 가야

- 농촌지역 보건환경 실태는 10년 전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음. 하지만 면단위는 군에서 운영한 보건지소가 유일한 의원이고 개인 약국 하나 없음. 버스를 타고 20~30km 가서 감기, 물리치료, 치과 진료를 받고 있는 실정임.<나종주, 전남 화순>

○ 농촌지역 공중위생 수준 낮은 편

- 농촌지역에서 개인위생은 그런대로 괜찮은 편인데 공중위생보건 수준은 낮은 편임. 인근 쓰레기장에서 풍기는 냄새며, 하수구 습지 등에서 서식하는 해충 등으로 위생 환경이 열악함.<옥을석, 경남 거제>

○ 거동 불편한 노인 위해 방문형 의료서비스 필요

- 농촌지역의 보건환경은 열악함. 보건지소 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시점에서 큰 병원에 가려면 차를 타고 이동해야 해서 노인들이 불편함.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들은 방문형 의료 서비스를 하였으면 좋겠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시점임.<김기원, 경북 영주>

○ 농촌지역 상하수도 시설 열악해 보건위생에 취약

- 농촌지역은 가장 기본적인 상하수도 시설이 열악함. 우리 동네는 얼마 전에 상수도가 설치되었는데 하수도 시설이 없어 보건위생에 취약함. 마을마다 하수도 시설을 설치해야함.<송인숙, 강원 강릉>

□ 농촌지역 연안과 여론

○ 긴 가뭄과 늦은 비로 인해 농산물 생산 큰 차질

- 긴 가뭄과 늦은 비로 인해 한해 농사를 망쳤음. 참깨는 태풍으로 쓰러져 1/4 가량 수확량이 줄었고 울무와 밭벼는 고사 상태임. 콩, 고추, 고구마도 웃자람이 현저함. 이상 기후에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관계 당국의 관심이 필요함.<나종주, 전남 화순>

○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도 보상 필요

- 가뭄과 폭염으로 노지채소는 아예 수확을 생각지도 못하고 있으며, 시설채소도 역시 폭염으로 상당부분 타죽은 상태인데 폭우가 와서 농산물이 망가지면 조금의 지원이라도 있지만 폭염은 보상도 없어 농가는 어려운 실정임. 폭염 피해도 일정부분 보상이 필요함.<김용덕, 경기 남양주>

○ 선녀나방 등 외래해충 확산, 당국의 조치 필요

- 충남 청양 지역은 외래종 벌레가 확산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 선녀나방, 날개 매미충 등 이름도 생소한 외래해충이 나무든 숲이든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식물체의 진액을 빨아먹고 있는 실정임. 진액이

빨린 나무는 결국 시들고 심하면 고사되어 버림. 이들은 살충제를 살포해도 잘 죽지 않고 그 숫자가 어마어마함. 방역당국의 조치가 필요함.
<장석우, 충남 청양>

○ 멧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 심각

- 멧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막아보려고 전기목책을 설치했지만 학습이 되어 버린 멧돼지들이 목책을 뛰어 넘어 들어와 옥수수 밭을 초토화 시키고 있음. 일전에 경광등을 켜 놓으면 안 온다고 해서 구입해 설치했는데 그것도 일주일 만에 학습이 되고 말았음. 동네 사람들이 모이면 이러한 피해 이야기들이 대부분이고 사람까지 다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음. 멧돼지로 인한 피해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함.<송인숙, 강원 강릉>

○ 평생교육 프로그램 농번기에 집중돼 여성농업인 참여 기회 부족

-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여성농업인이 참여할 수 없는 농번기에 집중되어 있음.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과제빵 교육 및 생활원에 교육 등이 그러하며, 사회복지회관, 청소년 수련관, 도서관,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학부모 교육에도 농업인들의 참여는 매우 어려운 실정임. 이는 어른들 뿐만 아니라 농촌에 살고 있는 유아 및 어린이 영어교육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지역특성을 고려한 농한기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함.<조영아, 강원 화천>

○ 제주도 '지하수 농사' 지속가능성 고려해야

- 제주도는 가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랑스에 가서 지하수 활용에 관한 기술을 배워와 농장마다 거의 지하수가 연결되어 있음. 농사를 식수와 다름없는 1급수로 하고 있음. 하지만 문제는 지하수 수위가 점점 내려가는 것에 있으며 해수면보다 더 아랫물을 끌어올려 쓰고 있는 실정임.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바다로 흘려보내는 물을 끌어올려 사용해야 하고 필요에 따라 빗물을 가둬 놓는 거대한 집수장을 만들어야 할 것임.<김상우, 제주 서귀포>

※ 본 자료는 8월 13일~17일 간 국내 농업전문지의 농업·농촌 보도내용을 정리한 것임.

□ 세계 곡물 파동, 곡물 자급률을 높이고 투자 서둘러야

- 미국·러시아 등 주요 곡물 생산국이 유례가 드문 가뭄에 허덕이고 있어 4,000만 톤 **곡물 공급 부족으로 인한 세계적 곡물 파동이 예상**. 곡물 시장에는 곡물 수요와 공급 차이를 노린 **투기 자금 유입**으로 국제 **곡물 가격이 지난 7월에만 평균 17%나 상승**. 이미 옥수수과 콩의 국제 가격은 과거 식량위기 당시인 2007~2008년 수준을 넘어섬. 한국은 식량 자급률 25%로 곡물 수입량이 세계 5위이며, 국제 가격이 오르기 전에 밀·옥수수·콩의 **올해 수입 물량을 미리 확보했는데도 벌써부터 두부·라면·맥주·햇반 값이 들썩임**.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국제 곡물가격 급등의 영향이 국내 식품 가격에 반영되어 물가가 크게 뛰고 서민 생계가 더 팍팍해질 우려가 있음**. <중장기적인 대책 방안 마련 시급> 쌀 외에 다른 **곡물의 자급률을 높여**나가야함. 우리는 쌀 재고가 남아돌아 논을 놀리면서도 다른 곡물은 거의 재배하지 않아 국제 곡물 값 변동의 충격을 더 크게 받고 있음. **농민들이 쌀 대신 다른 작물 재배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적·기술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함**. 해외 농지 개발과 미국의 곡물 저장·유통 창고 인수 등 **장기적·안정적으로 곡물을 들여오기 위한 적극적인 투자 역시 중요함**.

자료: 조선일보(2012.08.15, 칼럼).

□ 올가을 공공비축미 매입 늘려야

- **정부 쌀 재고량이 급격히 줄어** 식량의 안정적인 수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져...예상재고량(81만 톤) 중 국산은 미질이 떨어지는 2008~2009년산(20만 3,000톤)을 제외하면 **실제 밥쌀용으로 공급 가능한 최근 연산 국산쌀은 5만 7,000톤(2011년산)에 불과**(2010년 재고량은 없음). 이는 최근

5개년 정부쌀 재고 수준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원인) ① **지난 해 수확기 농가들의 출하지연**으로 정부가 공공비축미 매입에 차질, ② 물가당국이 지난해부터 **물가안정용으로 국산쌀을 집중 방출**▲(양정당국 입장) **올 수확기 공공비축미 매입 예정물량**을 지난해보다 3만 톤 많은 **37만 톤으로 늘렸고**, 밥쌀용 최소시장접근(MMA) 물량까지 감안하면 당장은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전문가들 견해) **정부의 군·관 수용 및 공공용 공급량과 단경기의 민간수요용 공급량을 감안**하면 **현재 재고수준**은 거의 여유가 없는 **빠듯한 상황**이라며 대책마련 주문

자료: 농민신문(2012.08.13).

□ 조사료 자금 확대 정책 엇박자

- **농림수산식품부**가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사료 자급률 제고** 대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국토해양부와 환경부가 잇따라 엇박자**를 놔 농업계 강한 반발...▲(**농림수산식품부**) 하천부지 등을 포함해 **대규모·집단화된 우량농지**를 대상으로 매년 10개소씩 모두 **50개소**의 **조사료 생산특구(500ha 이상)**를 지정...▲(**국토해양부**) 경작을 목적으로 한 하천 점용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하천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이 법이 시행될 경우 지자체나 농협 등의 하천부지 이용 사실상 불가능...▲(**환경부**) 하천부지에는 **경관목적의 식재**라도 수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엔 불허한다는 내용으로 **환경영향평가 적용기준 강화**...▲(**축산관련 단체 입장**) 공적자원인 **하천의 모든 공익적 이용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하천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환경평가 적용기준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

자료: 농민신문(2012.08.17).

□ 농림수산식품 예산확보 '비상'

- **역대 예산안 중 가장 낮은 인상률**...사업차질 예상.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내년도 각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당초 발표한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안 규모는 올해 15조 4,000억 원보다 8.7%나 줄어든 14조 1,000억 원임(**한도 외로 약 2조 5,900억 원의 예산을 요구**, 총 16조

4,000억 원 이상을 편성해 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태). **농촌진흥청과 산림청 예산을 포함할 경우 올해(18조 1,000억 원)보다 48% 줄어든 17조 3,000억 원 수준 전망.** ▲(예산당국의 입장) 4대강 사업이 끝난 만큼 해당 예산은 줄어야 하며 **GDP(국내총생산) 비중 대비 농어업 예산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높기 때문에 예산을 축소해야** 한다는 것…▲(농업계의 입장) “그간 예산당국은 **4대강 예산**을 농식품부 예산과 분리해 편성했어야 하나 그동안 **농업예산에 포함시켜왔으며…농업예산을 GDP와 연관시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우리나라의 경우는 최근 강대국과 잇따라 FTA를 체결하는 등 **농업여건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만큼 **이에 맞는 예산 규모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

자료: 농수축산신문(2012.08.13).

□ 농촌연실 외면한 ‘세계개편’

- 농업인·서민 대상의 조세감면을 대폭 축소하는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두고 농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음.** ▲(농민 단체 입장) “비과세 예탁금이 폐지되면 도농 소득격차도 심화될 수밖에 없는 만큼 **비과세 일몰기한을 반드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김근진 강진농협 조합장). “**국회와 정부는 농업 관련 조세감면 기한을 연장**,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고 강조(이광우 물야농협 조합장). ▲(학계 입장) “**비과세 예탁금 폐지나 조합 법인세율 인상**은 이번 **세법개정안의 전체적인 방향에 역행**…농업인의 어려운 경제사정과 농협의 특수성을 고려해 **특례를 계속 인정**해 줘야 한다”고 강조(양승룡 고려대 교수). “**재형저축과 비과세 예탁금은 똑같이 서민을 위한 금융상품인데 재형저축은 부활시키면서 비과세 예탁금을 폐지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고 지적(박종수 충남대 교수). ▲(정치권 입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가 절실한 시점에서 과세 강화는 시기적으로 부적절…**조합 비과세 예탁금과 법인세 당기순이익 과세특례를 연장**하고,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도 당분간 유지**할 것”을 요구(새누리당 지도부).

자료: 농민신문(2012.08.13).

□ [기획] 세계 속의 한국 농산물, 중국 부유층을 뚫어라

- 중국의 13억 인구 중 한국농산물에 대한 잠재 소비층은 약 2,800만 명으로 추정
 - 2010년 기준, 연소득 20만~30만 위안(3,600만 원~5,400만 원) 사이의 신흥 부자는 2,740만 명, 연소득 30만 위안(5,400만 원) 이상인 부자는 102만 명으로 전체 신흥 부자는 2,800여만 명 정도 추산
- 현실적으로 한국농산물이 중국시장을 직접 공략하는데 큰 어려움 존재
 - 중국농산물의 가격은 한국농산물과 비교해 10~20%에 불과
 - 중국시장에 기 진출한 일본과 대만의 고품질 농산물, 더 나아가 일본기업과 한국 농업인이 자국종자와 기술을 통해 중국현지에서 생산한 농산물과도 경쟁 불가피
- 한국농산물이 중국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소득수준 격차가 크며 식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27개 성과 4개 직할시를 개별국가로 보고 전략을 마련하고 단계적인 접근 방식 필요
 -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가 넘으면서 한국과 거리가 가까운 텐진, 상하이, 베이징을 우선 공략대상으로 선정 필요
 - 일정 소득수준 이상의 신흥부유층을 주된 공략대상으로 설정
 - 중국의 신흥 부유층은 중국산 농산물의 안전성에 큰 불신을 갖고 있음.
 - ※ 농협의 ‘껍질째 먹는 안심사과’는 중국인의 과일을 껍질째 먹는 식습관과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수요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품목
 - ※ 한국산 파프리카와 딸기, 쌀도 중국농산물과 품질 차이가 커 효율적으로 시장을 공략하면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음.
- 한국농산물의 잠재 수요층인 중국의 신흥 부자에 대한 공략을 구체화해야 함. 또한 이에 맞춰 중국 전문가를 육성하고 중국 내 농업관련 기관과 산지, 소비자와의 교류도 확대해 나가야 함.

자료: 농민신문(2012.08.13).

연구 지원 정보

도농교류 현황(2011년 말 기준)

※ 본 자료는 e-나라지표(www.index.go.kr)에서 제공되는 「도농교류 현황」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

□ 지표개념

-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도시민들이 농촌체험관광을 보다 쾌적하고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마을공동의 농촌체험기반시설, 마을경관, 생활편의시설 설치 등에 지원하여 농촌체험관광 및 도농교류 거점으로 육성하는 사업

※ 통계항목: 체험마을을 방문한 도시민의 수와 마을의 농촌관광매출액

- (1사1촌운동) 기업체·단체와 농촌마을간 도농상생을 위하여 상호 교류하는 운동임.

- 기업체·단체는 농촌마을에서 휴식과 체험 등 재충전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농산물직거래, 봉사활동 등을 통해 농촌지역사회 경제 활성화 추진

※ 통계항목: 1사1촌의 자매결연 건수 및 교류금액

□ 주요내용

- (녹색농촌체험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은 2002년 18개소에서 2011년 553개소로 연평균 36.5%의 증가율을 나타냄. 2011년에는 방문객 520만 명, 농촌관광 매출액 681억 원 기록

※ 체험마을수는 '11년까지 누계, 방문객 수 및 매출액은 당해 연도 수치임.

- 주민 역량교육 강화, 상호 정보교류 및 정부지원 확대 등에 따라 매년 조성되는 녹색농촌체험마을수가 늘어나고 있어 농촌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음.
- 다양한 홍보와 체험마을 운영 지원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에 따라 방문객 수와 관광매출액도 매년 증가

○ (1사1촌운동) 자매결연마을은 2004년 2,404개에서 2011년 8,741개로
연평균 20.3%의 증가율을 나타냄.

- 1사1촌 자매결연에 따른 도·농교류금액은 2004년 43억 원에서 2011년
611억 원으로 연평균 46.1%의 증가율을 나타냄.

※ '11년 기준 1사1촌 교류실적(611억 원) : 농산물직거래 378억 원, 농촌일손
돕기 등 봉사 125억 원, 농촌체험 41억 원, 물품 기증 등 67억 원

<도농교류 현황>

단위 : 개, 만 명, 억 원, 건수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18	44	76	123	190	274	364	442	539	553
- 체험마을 방문객수	-	-	93	99	134	157	281	363	454	520
- 체험마을 관광매출액	-	-	74	111	183	231	374	445	615	681
○ 1사1촌운동 자매결연	-	-	2,404	8,677	14,408	8,114	7,581	7,712	8,180	8,741
- 교류금액	-	-	43	418	1,400	553	565	606	615	611

※ 자료 작성: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